

분과별 심포지엄 참가기

The Sectional Report of the 40th Korea-Japan Professional Engineer Sympos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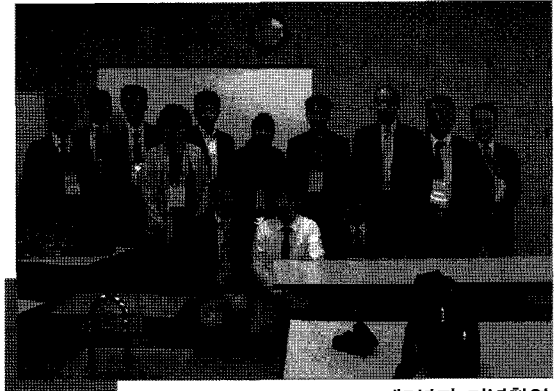
제5분과 영어발표



글 | 朴 泰 熙
(Park, Tai Hee)

- 건축시공기술사
- (주)행림종합건축사 사무소 이사

E-mail: jspa07@yahoo.co.kr



▲ 제5분과 기념촬영

후쿠오카 공항에서 내려 시모노세키 회의장으로 오는길은 버스로 한 시간 제법 넘게 걸렸다. 밖을 바라보니 풍경이나 바람결이나 한국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망연히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러한 내 느낌에 대한 일본기술사의 답변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풍토나 사람 사는 모습이나 비슷하기 마련이란다. 아무튼 섬나라 제주도 보다 더 한국적인 면이 언뜻 보였다.

제5분과가 열린 장소는 시모노세키 역에서 가까운 카이쿄멧세 시모노세키 빌딩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 되었다.

카이쿄 멧세의 뽀족한 빌딩은 시모노세키의 랜드마크인 전망대가 있는 빌딩이다. 이 건물이 흥미로운 것은 시모노세키에서 가장 수직적인 높이를 자랑하는 웅장한 건물이면서 외부 4면이 유리벽으로 되어있어 그냥 보면 각층마다 사용할수 있는 공간이라 추측하였는데 중간층은 텅비어 상부라운지로 연결된 엘리베이터와 계단실 밖에 없는 튜브식 코야로 된 커튼월 건물이었다. 라운지 위에서는 시모노세키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데 바닷가 전원도

시의 모습은 이국적이고 조용해 보였지만, 이곳에서 생의 한부분을 지나가신 우리 선조들은 저 검은 밤하늘에 보고싶은 산하를 얼마나 그려놓았을까라는 손톱무는 상념이 잠시 멎들었다.

지금까지 제5분과는 청년층을 주축으로 하여 영어로 발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청년이라는 타이틀 없이 누구나 자발적인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영어로 하는 자유로운 주제선정으로 한 것이 이채로웠다.

좌장은 정보관리분야의 Tabuki Takaaki 부 좌장은 차순철 기술사(화공/화공안전/가스/소방)가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는 화학분야의 Hidetoshi Nemoto이며, 주제는 「The advantage of the Japanese industries impressed through business in China」였다. 발표 주요내용은 일본이 경제적인 침체가 지속되는 반면 중국은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룬다고 하였으며 그 예로 전선 electrical cable 분야에서 중국과 비교하여 일본이 지속적으로 제조 개발 기술을 개발하여야만 최근의 어려움을 타

개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는 생물공학분야의 Noriya Mitome이며, 주제는 「Biochemical study of ATP synthase using fusion protein technique」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walker씨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표자는 ATP 합성효소를 생화학적으로 해석하는 단백질 융합 합성기술을 소개하였다. ATP 합성기술은 효소구조를 통제하면서 유전자적인 변화를 기하는 생화학적인 기술로써 세계적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부좌장이었던 화공분야 차순철 기술사가 「Introduction to SIL (Safety Integrity Level) Study for Middle East Refinery Project」란 주제로 특유의 다소 허스키한 목소리로 매우 열정적으로 약간 생소한 SIL 분야를 소개 하였다 석유공장 혹은 정유공장에서 계장안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IEC 가이드라인을 기준한 중동 정유공장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네 번째 발표자는 일본 측 생물공학분야의 Yaoya Sayaka가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the grassroots level」을 발표하였다. 나이 어린 생물분야 기술사보이고 유일한 여성 연사라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네팔은 개발도상국이므로 일본에서 국제적인 협력차원에서 지원시 그 나라 환경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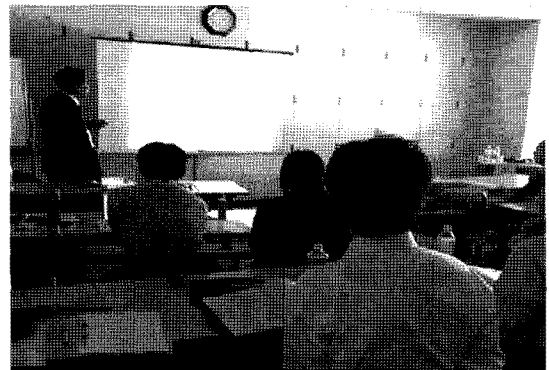
다섯 번째 발표자인 최인걸 토질 및 기초기술사는 「Case Study o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Geotechnical Part f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된 배경에 대하여 활주로, 방조제 등의 설계 및 시공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의 유창한 영어설명과 매끄러운 프리젠테이션 매너에 좌장을 비롯한 한·일 기술사들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전체적으로 5분과는 다른 세션과는 다르게 통역 없이 진행되어서 빠른 진행을 보였으며, 이것은 대부분 국제회의가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것과 같은 글로벌시대를 반영한 형식이었다.

이제 다른 분과도 한·일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행사시 영어로만 진행 될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되었다.

참석자 대부분이 영어로 질문과 대화시간에 주제와 초점에 맞추어 열띤 공방이 이루어졌으나 약간 안타까운 것은 한국 측의 참석자가 다른 때에 비하여 저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발표 후반부터 격려차 들리신 한국기술사회 한영성 회장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신 덕분으로 한국의 위상향상은 물론 5분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 된다.



▲ 제5분과 발표전경

(원고접수일 2010년 11월 18일)